

# 부산항만 · 물류EXPO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

## The Attracting Strategies for Busan Harbour EXPO

손애휘\*

---

### 목 차

---

- |                                 |                             |
|---------------------------------|-----------------------------|
| I. 서 론                          | 3. BIE의 개최지 결정요인과 시사점       |
| II. 부산항만 · 물류EXPO 유치 당위성 및 기대효과 | IV. 부산항만 · 물류EXPO 유치 방안     |
| 1. 당위성                          | 1.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리 개발         |
| 2. 기대효과                         | 2. 차별화된 주제 및 이념 개발          |
| III. 부산항만 · 물류EXPO 유치 여건 분석     | 3. 메가이벤트 · 테마파크로서 축제프로그램 개발 |
| 1. 강점과 약점요인                     | 4. 단계별 항만 · 물류EXPO 개최       |
| 2. 기회와 위협요인                     | V. 결 론                      |
- 

Key Words: Busan Harbour EXPO, Registration Exposition, BIE(International Exhibition Bureau), Ocean Capital, theme park

---

### Abstract

---

This study suggests the holding of the 2015 Busan Harbour Registration Exposition in order to activate port & logistics industry, motivate Busan regional development and set up the long-term goal of local people.

The SWOT analysis shows that the given conditions of Busan is competitive to attract the 2015 Busan Harbour Registration Exposition, which might be further strengthened for the competitiveness of the Port of Busan

The way to maximize the holding possibility of the EXPO, then, should be more emphasized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re-Expos periodically and successively by developing and planning perfectly logicity, differentiated subject and concept of the EXPO which accepted in the inside and outside of country.

---

\*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ahsohn@bs21.net, (051)888-5191

\*\* 본논문은 2005년 6월 한국항만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I. 서론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해양수도 건설을 지향하는 부산은 21세기 부산경제를 선도하는 성장엔진으로서 항만·물류산업을 제1의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항만·물류산업의 육성대책으로, 각종 해양·물류관련 공공기관 및 해양·물류관련업체본사의 부산 유치,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부산포트플라자 건립,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 유류공급기지 구축, 복합물류센터 건립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항만·물류산업정책을 최적화시키면서, 지역역량과 내생적 발전동력을 극대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배가시키며 부산의 입지특성을 구현할 구심점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EXPO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3대 국제행사의 하나로서, 세계 각국은 EXPO를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있다. 특히 일본은 1970년 오사카박람회, 1975년 오키나와해양박람회, 1985년 쓰쿠바과학박람회, 2005년 아이치박람회 등 여러 도시에서 공인박람회를 개최하여 박람회 천국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정박람회(Recognition Exposition)인 '1993대전EXPO'를 개최한 사례가 있고, 2012년을 목표로 한 '여수세계인정박람회'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지금까지 EXPO 유치를 위한 연구나 논의가 없어, 본 연구에서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와 부산 발전의 계기, 그리고 시민의 공동목표 설정을 위해 세계적 공인등록박람회(Registration Exposition)로서 '2015부산항만·물류EXPO' 유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2002부산아시안게임을 통해 결집되었던 시민정신을 재점화할 수 있고, 부산의 입지 특성과 다양한 국제행사 경험, 우수한 도시·항만·물류인프라 등으로 부산에서만 가능한 EXPO를 개최할 수 있다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I장에서 부산항만·물류EXPO를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전개한 후, III장에서는 EXPO 개최를 위한 부산의 유치여건을 SWOT 분석으로 구체화하였다. 분석결과와 BIE(세계박람회기구, International Exhibition Bureau)의 개최지 결정요인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IV장에서 부산항만·물류 EXPO 유치를 위한 차별화전략과 그 추진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 II. 부산항만·물류EXPO 유치 당위성 및 기대효과

### 1. 당위성

### 1) 부산의 도시비전과 목표 실현의 계기

부산의 도시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입지여건과 잠재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사업이 개발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의 도시비전은 '21세기 동북아시아의 해양수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도시목표는 '동북아의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동남광역경제권의 중추관리도시', '동북아 해양문화·관광거점도시'의 실현이다. 물류·비즈니스·지식산업·해양문화가 함께 하는 해양수도 실현으로 지역혁신을 이루자는 것이다.

국가발전전략적 측면에서도 부산은 해양물류기능에 기반한 해양수도이다. 2001년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공간상의 주요도시들은 산업적 측면에서 특화기능을 부여하고 있는데, 지방도시의 산업별 수도화전략이 그것이다.<sup>1)</sup> 부산은 해양·항만과 관련된 수도기능의 확보, 해양·항만관련산업군의 본사 유치, 해양·항만지원서비스시설의 유치, 해양·항만관련 인재 육성 등을 통해 해양수도가 되고자 한다. 여기서 항만·물류EXPO는 물류·비즈니스·지식산업·해양문화 등을 종합하는 장을 연출하게 되므로, 해양수도 달성을 위한 최적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 1970년 오사카EXPO는 일본을 기술선진국에 진입시킨 도약대로 작용하였고, 2005아이치EXPO도 같은 성공을 기대하며 유치하였다. 우리의 경우도 2015부산항만·물류EXPO를 개최하여 항만·물류산업의 선진기술 습득 및 연관산업 발전, 외국인 투자 증대 등으로 선진항만도시 부산 창출의 도약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장기적 공동목표 설정에 적합

시민결집력과 국가발전동력으로서 올림픽, 월드컵, 박람회 같은 메가이벤트 개최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부산의 경우도 2002부산아시아안게임을 겪으면서 도시 성장이 이루어졌고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1993년 유치 결정 이후 1995년 개최지로 확정, 2002년 실제 개최할 때까지 10년간 시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었다.

향후 10년 동안 부산시민을 재결집시킬 수 있는 공동목표가 필요하다. 부산의 입지여건과 도시특성을 결합시킬 수 있는 이벤트로는 항만과 관련된 세계EXPO가 적합하다. 부산항 개항 이후 최대규모의 행사가 될 수 있는 항만·물류EXPO는 세계적인 해양도시의 입지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3) 높은 도시경쟁력과 유치 가능성

부산의 입지여건과 경쟁력은 EXPO개최에 적합하여 EXPO 유치 가능성이 높다.

부산은 부산국제영화제, 월드컵 본선 조추첨행사, 2002아시아안게임, 2005년 APEC정상회의 등 국제행사 개최에 충분한 역량과 명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산항을 통한 세계

1) 부산광역시, 「해양특별시 설치 타당성 연구」, 2004. 12, pp. 19-21

적 인지도도 높은 도시이다. 지정학적으로는 유라시아와 환태평양의 관문으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리이며, 미주와 유럽을 연결하는 주간선항로상에 위치하여 TKR과 TCR, TSR이 연결되면 세계물류중심지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한국 제2의 도시이자 한국 제1의 항만, 세계적 컨테이너항만 보유도시로 우수한 도시기반인프라와 항만·물류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다양하고 많은 대학과 산업지원기관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과 동남권 산업클러스터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부산이 국제적 메가이벤트인 EXPO 개최를 위해 대내외경쟁력이 높은 도시임을 보여 주고 있다.

## 2. 기대효과

### 1)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경제발전효과

일반적으로 EXPO 개최를 통해서 주최국의 기술 및 산업 발전은 물론 사회 문화 정치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발전확산효과가 크며, 관련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는 경기 확장효과를 가져오고, 개최 이후 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EXPO 개최는 많은 재원과 용역의 구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생산 유발, 고용유발 등 경제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표 1>은 국내에서 개최한 주요 EXPO 및 메가이벤트를 비교분석한 내용이다. 등록박람회인 부산항만·물류 EXPO 개최효과는 2010여수등록박람회 유치시 제시된 효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부산은 구비된 항만·물류인프라와 도시기반시설로 인해 투입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경제성이나 지명도에 따른 파급효과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 2) 선진항만도시로서 경쟁력 강화

부산항은 컨테이너 화물처리의 양적인 경쟁력으로 지명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상해항 및 선전항에 이어 세계 제5위의 컨테이너 처리항으로 뒤처짐으로써 양적인 부분도 경쟁력을 잃고 있다.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경영전략으로서 항만·물류 EXPO를 개최하여 항만·물류산업 육성시책들이 실천력과 추진력을 갖추게 하고, 외자유치효과 및 연관산업 활성화, 그리고 세계 최고수준의 항만·물류 과학화를 이루어 항만의 질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EXPO 유치는 선진항만·물류도시로서 부산항 발전의 획기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21세기 새로운 물류시대관을 확립, 물류중심국가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입지

---

2) 국제적 메가이벤트의 경우 정부지원을 통한 인프라의 확충이 가능하고, 지역상품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어 메가이벤트 유치 및 개발이 지역의 주요경영전략으로 등장하고 있다. (주수현, 『메가이벤트의 지역경제효과분석 모델 구축』, 부산발전연구원, 2003. 11, p.6)

확보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항만이 산업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양·항만 문화를 창조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매개체 역할도 수행, 실질적인 선진항만도시로서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 3) 항만·물류산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 고취

항만·물류산업은 부산광역시 제1의 전략산업, 차세대성장동력산업으로 부산의 미래를 책임지는 산업이다. 부산항만·물류EXPO 개최를 통해 항만·물류관련지식, 기술, 학술, 문화분야의 다양한 교류와 함께 항만·물류산업 외에도 부산의 4대 전략산업인 기계부품소재산업(자동차·조선), 관광·컨벤션산업, 영상 및 IT산업(항만·물류IT기술)의 참여가 가능해 여타 산업을 동반발전시키는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EXPO는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전파하는 계기가 되며, 새로운 아이디어, 산업기술, 관련제품이 전시되어 국제적으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므로, 부산항만·물류EXPO 유치를 통해 항만·물류산업의 중요성과 기여도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즉 항만·물류EXPO는 항만·물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지식을 제공하는 국민교육의 장으로서 항만·물류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국민적 관심과 이해,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표 1> 국내 주요 EXPO 및 메가이벤트 비교분석

구분	88서울 올림픽	93대전 엑스포	강원국제 관광EXPO	2000경주 EXPO	2001도자기 EXPO	2002 월드컵	2012여수세계인 장박람회(안)	2010여수세계 등록박람회(안)	
	16일	3개월	50일	87일	80일	1개월	3개월	6개월	
방문객	목적관련객		1,500,000명	2,000,000명	4,000,000명		30,000,000명	30,000,000명	
	총방문객	317만명	1,400만명	2,260,222명	1,730,000명	6,060,000명	180만명	1,500만명	
	1일평균		45,200명	19,885명	76,000명		-		
	외국인비율		68만명	23%	7.8%	3.3%	63만명	300만명	500만명
경제파급효과	소비지출		1,668억원	1,899억원	3,812억원		-		
	생산유발	4조 7,500억원	3조 643억원	2,781억원	3,182억원	7,006억원	14조 5,175억원	10조 7,894억원	21조 4,240억원
	부가가치 유발	1조 8,460억원	1조 2,500억원				6조 6,261억원	5조 3,840억원	10조 3,900억원
	소득유발			1,440억원	777억원	1,654억원			
	고용유발	336천명	210천명	7,200명	22,196명	41,014명	425천	157천명	54만명
인력규모	국내		119개	119개	45개 단체		-		
	국제		60개국 78개차량정부	81개국 9,414명	84개국		140개국		
	운영인력		985명	1,964명	1,547명		-	-	

자료) 부산시, 여주시, 대전시, 경주시, 이천시,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

### Ⅲ. 부산항만 · 물류EXPO 유치 여건 분석

#### 1. 강점과 약점요인

부산항만 · 물류EXPO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환경과 지역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SWOT(Strengths Weakness Opportunities Threats) 분석을 수행하였다. SWOT 분석은 목적과 관련하여 내외에서 발생하는 주변의 주요 사실요인들을 수집하고 내부적 요인인 강점과 약점요인, 외부적 요인인 기회와 위협을 분석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SWOT 분석을 통해 강점의 효과는 극대화하고 약점은 전략 개발, 제도 개선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 기회는 강점을 이용하여 더욱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위협은 오히려 기회요인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SWOT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부산의 EXPO 유치 여건에 대한 SWOT 분석 결과, 첫 번째 강점요소로서 부산의 국제적인 인지도가 높다는 것이다. 2002아시안게임, 월드컵조추첨, APEC 정상회의 등 대형국제행사와 메가이벤트에 대한 성공적인 개최지역으로, 세계적인 컨테이너항만으로서, 그리고 조선 및 해운강국의 위상도 세계적인 지명도에 일조하고 있다.

둘째, 세계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자부심 및 다양한 물류관련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얻은 역량을 들 수 있다. 대형메가이벤트와 ‘부산국제수산물무역EXPO’, ‘부산국제철도전 및 물류산업전’,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 등 물류관련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경험 축적으로, 부산항만 · 물류EXPO 개최에 대비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단순 인지가 아닌 실행과 체험 차원에서 추진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도시기반시설 및 항만 · 물류인프라, 특급호텔 등의 숙박시설과 백스코 등 관광 · 컨벤션인프라, 바다와 산과 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우수한 도시 및 항만 · 물류인프라를 장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행사를 개최할 부지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동부산개발지역, 서부산개발지역, 북항재개발지역 등 대규모개발지역 활용이 가능해 EXPO 행사장소를 위한 부지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입지적 장점으로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들 수 있다. 환동해축과 환황해축이 동북아 전체 공간구조의 핵심축에 위치하며, 이는 부산의 국제적 지위와 대외교류 확대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소이다. 미주와 유럽을 연결하는 주간선항로상의 태평양과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역사 · 문화중계지, 해운 · 항공의 연계중심지,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해양 · 육상의 잠재적 연계중심지로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고 있다. 2011년 부산신항의 완전개장과 고속철도가 완공되어 TKR과 TSR, TMCR, TCR과

연결되면 남북교류 및 미래 철의 실크로드 시발지역으로 동북아 물류중심의 역할은 물론 세계물류중심지로서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여섯째, 국내 1,000만 인구의 동남권 산업클러스터의 중심으로서 충분한 배후시장과 배후지 인구를 확보하고 있어 국제행사 개최의 기본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일곱째, 해양특성화대학인 한국해양대학교를 비롯한 7개 대학교, 전문대학 1곳에서 함만·물류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어 양적·질적 우수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단점 요소는 첫째, 타시·도에 비해 부산광역시의 EXPO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금까지 유치 및 개최를 위한 시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EXPO 유치를 위해 여수나 광주, 전라남도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했으나 부산의 경우 유치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sup>3)</sup> 부산은 지금까지 EXPO 유치나 개발에 미흡했으므로, 이 기회를 통해 단합된 시민의 힘을 과시하고 2015년 이후까지 그 열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항공노선 및 김해국제공항 공항물류시설의 부족은 부산의 입지적 강점인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접근성이나 해운·항공의 연계중심지임을 무색하게 한다. 이에 남부권 신국제공항 건설사업은 복합수송체계의 일환인 Sea-Airport 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10~20년 내에 김해국제공항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시급히 건설해야 하는 당위성을 적극 파악해야 한다. 단점을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부산의 해양문화, 항만문화의 빈약성은 EXPO 유치를 기회로 친수항만공간화, 환경친화적 신해양문화를 개발, 항만을 엔터테인먼트와 감동이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부산이 경쟁국 대비 물류후진국이라는 점은 EXPO 유치를 통해 부산항의 강점 요소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국제물류도시란, 사람, 화물,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되나 부산항은 화물만 집중되어 국제물류도시가 아니라 국제터미널 역할에 머물고 있다. 사람, 정보, 화물이 집중되는 국제물류도시로서 편익을 누리기 위해 EXPO와 같은 국제적 모멘트를 스스로 창출하여 선진항만·물류도시로서의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

## 2. 기회와 위협요인

항만EXPO 유치여건에서 기회요소로는 2010년 중국 상해의 세계EXPO 유치에 따른 상대적 위기의식이 높아졌다는 점,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이후 지역에서의 메가이벤트 개최 필요성이 대두된 점, 그리고 BIE 공인등록박람회 유치실적이 없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2001년 5월 중국 상해에 밀려 개최지에서 탈락한 2010여수EXPO는, 1996년 전라남도에서 최초 제안한데서 출발하였다. 유치 실패후에도 2004년 1월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2012년 인정박람회 유치에 합의하고 국가계획으로 확정을 건의한 후 재추진하게 되었다.

다음 유라시아철도 연결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철의 실크루트가 조성되는데 따라 부산항은 새로운 안목으로 비약할 것이며, 동북아 대륙철도망 구축에 따른 항만, 육상운송의 대륙시발점효과는 EXPO 행사테마 중 체험관의 형태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동북아경제중심국가를 위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방정부의 부산항의 동북아물류중심항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들 수 있다. 이것을 EXPO 유치와 연계,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상 기회요인들은 EXPO 유치를 위한 논리 개발과 항만·물류EXPO 행사프로그램의 주요테마들로 기획될 수 있다.

위협요소로 지적된 외교력의 문제와 BIE 개최국 결정시 2015부산EXPO가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역대 EXPO 개최사례를 대륙별·국가별로 분석하여 잘못된 논리임을 지적하고, 지속적, 대대적인 Port-Sales와 국제행사 등으로 부산EXPO 유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자신감과 역량 표출을 통해 위협요소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2012여수세계인정박람회 유치와 관련해서는 그 차이점과 함께 여수-부산 연속개최에 따른 국가경쟁력·국가브랜드의 급상승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여수는 '바다,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을 주제로 2012. 5~8월(3개월)간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 부산은 항만·물류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 성격의 등록박람회 유치가 목표로 유치하려는 EXPO 대상이 다르다. 부산EXPO가 여수의 유치노력에 위협요소가 아님을 설득하면서 오히려 연속개최를 통한 국가브랜드 상승과 동북아 물류·비즈니스중심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발전을 위해 공동노력, 대한민국 신화를 창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2005년 6월 밝힌 2020부산하계올림픽 유치(안)<sup>4)</sup>을 통해 약점요소에서 제기한 부산시의 EXPO에 대한 마인드 부채를 볼 수 있다. 입지여건, 경제적 파급효과, 유치가능성, 그리고 항만물류도시라는 도시특성이나 동북아 해양수도 지향이라는 도시장기비전에서 봤을 때, 올림픽보다는 공인등록박람회인 항만·물류EXPO가 더 가깝기 때문이다. 올림픽은 세계적인 스포츠제전으로 유치시 부산의 위상 강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도시비전 달성과는 무관하고, 유치 노력이나 투자비 또한 상당하지만 개최기간이 20일 미만이라 파급효과가 국민경제에 구조적으로 작용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부산지역에서 두 종류의 메가이벤트를 유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부산시는 널리 알려져 이미 익숙한 올림픽처럼 EXPO의 성격과 특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하여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 경제적 파급효과, 유치가능성 등을 철저히 비교 검토, 무엇이 더 지역특성과 부산의 미래를 대변할 수 있을 지 신중하게 판단한 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2005년 6월 부산시에서는 「부산을 바꾸자-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사업 구상」을 통해 월드컵 이벤트로서 2020년 부산하계올림픽 유치안을 소개하고 있다.



<표 2> 부산항만·물류EXPO 유치여건에 대한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1. 국제적으로 높은 도시인지도 2. 다양한 메가이벤트 및 물류관련국제행사 개최 경험 3. 우수한 도시·항만·물류인프라 4. 행사장 부지 확보 용이 5. 지정학적으로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공간구조상의 유리한 입지 6. 동남권 산업클러스터의 중심 7. 풍부한 항만·물류인적자원	1. 타시도에 비해 EXPO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유치 및 개최 시도 미비 2. 국제항공노선 및 김해국제공항 공항물류시설 부족 3. 해양문화환경의 빈약성 4. 경쟁국 대비 물류 후진국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1. 2010년 중국 상해의 세계EXPO 개최에 따른 위기의식 고조 2. 월드컵, 아시안게임 이후 지역의 메가이벤트 개최 필요성 대두 3. 우리나라 BIE 공인 등록박람회 개최 전무에 따른 기회 확보 가능성 4. 유라시아철도연결 가능성 5. 동북아경제중심국가·동북아물류중심항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	1. 국내의 유치경쟁 가속화와 외교력의 취약 2. BIE에서 개최국 결정시 대륙별 안배로 배제 우려 - 일본(2005), 중국(2010), 한국(2015) 3. 여수인정EXPO 유치 추진 4. 부산시의 2020올림픽 유치계획(안)

### 3. BIE의 개최지 결정요인과 시사점

BIE의 EXPO 개최지 공인절차는 다음과 같다.

박람회 개최의사 표명 → BIE 사무국 현지조사로 실행가능성 점검 → EXPO 개최시기 배정 → 신청국의 EXPO 등록 → 회원국의 비밀투표로 BIE 공인여부 결정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박람회 개최의사는 등록박람회 개최 9년전에(인정박람회는 5년전) BIE사무국에 공인 개최의사를 서면표명(비공식개최의사 표명 가능)하면 공식유치 신청이 가능하다. 공식 서면서에는 주제 및 기본이념, 개최시기, 기간, 주최측의 법적지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서면신청 후 6개월간의 공시기간 종료 후 총회에서 BIE 사무국 현지조사를 결정하면 1주일간 BIE조사단의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BIE 조사단의 주요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12가지)

- 박람회 명칭, 개막식, 폐막식
- 박람회 제안이유와 예상되는 성과, 박람회 개최에 대한 여론 및 여건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1집 제3호 (2005. 9)

- 박람회 주제 및 목적의 실현가능성
- 주제, 전시내용과 행사의 연계정도
- 박람회 준비를 위한 입법, 조직, 재정 및 BIE 측의 요건충족여부
- 박람회 홍보전략 및 홍보물
- 박람회 참가자에 대한 규정 및 회의, 세미나, 행사계획 등
- 외국참가자에 대한 할당면적 및 지원사항
- 박람회 관람객수 및 유형
- 참가자의 참가경비 산정기준

공인등록서 신청은 등록EXPO는 개최 5년전(전문은 3년전)이므로 개최국 결정 후 7~8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예상할 수 있다. 신청서상에는 박람회에 대한 법령과 제도, 재정적 조치, 박람회의 표어 및 주제, 개최기간 및 회장면적 등 전시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최지역은 현지조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 후 전체 회원국 2/3 이상이 참여한 BIE총회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출석회원국 2/3의 득표를 얻어야 결정된다. 이러한 공인 절차는 18개월 정도 소요된다.

부산의 입지환경, HW 환경, SW 환경 등을 바탕으로 SWOT 분석한 결과와 BIE 실사 조사내용을 비교했을 때, 개최 타당성이나 준비사항 등에서 부산이 실사기준을 맞추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사기준 중 '박람회 개최에 대한 여건'이나 '박람회 제안이유와 예상되는 성과'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격과 논리 개발이 가능하며, 나머지 조건들은 기획력이 필요한 주제 개발이나 행사준비계획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치논리의 당위성과 차별화된 주제 개발, 그리고 피드백전략으로 무장한 사전 준비프로그램이 기획되고 개최역량을 그대로 보여 줄 수 있다면, 2015년 부산EXPO 개최는 바로 현실이 될 수 있다.

BIE 실사기준에 대응하고 BIE와 회원국들을 상대로 한 외교활동에 있어 중요한 것은, 완벽한 부산항만·물류EXPO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다. 2015년의 일회성 EXPO를 벗어나 2015년 이전과 이후에도 단계별로 항만·물류 EXPO를 개최하여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면서, 타경쟁도시들에 대해 우위를 선점해 나가야 할 것이다.

## IV. 부산항만·물류EXPO 유치 방안

### 1.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리 개발

2015부산항만·물류EXPO를 위해 EXPO 유치전담조직으로서, 1998년 리스본박람회와 같이 EXPO전담회사나 전문가로 구성된 유치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2015년의 9년 전인 2006년에는 BIE에 개최의사를 표명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유치를 위한 본격 레이스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우선되어야 할 것은 부산 유치를 위한 대내외 공감대 형성이다. EXPO 부산 유치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정부와 타지방자치단체를, 대외적으로는 BIE를 상대로 한 유치 논리가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는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EXPO 유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여야 한다. 중국의 상해항 및 선전항에 뒤쳐진 부산항의 위기 상황과 2010상해EXPO 유치로 인한 경쟁도시 상해의 급부상 등 대외적 위기요인과 국내에서는 등록박람회를 개최한 적이 없어 상대적 유치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부산의 우수한 유치여건 등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여수와 함께 하는 공동노력이 필요하며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면서 경쟁상대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관련조직의 합리적 구성 등 효과적이고 입체적인 유치전략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도 부산항만·물류EXPO 유치시 강점인 세계적인 메가이벤트와 물류관련 국제전시회 개최를 통한 다양한 경험, 우수한 입지적 조건과 국제적으로 높은 인지도, 정비된 인프라시설 및 적합한 박람회 부지, 풍부한 배후시장과 인적자원, 동북아 물류 중심 실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와 강력한 의지, 그리고 동북아 대륙철도망 구축 가능성이 높아 항만·육상운송의 대륙시발점이자 미래 철의 실크로드 완성지역이라는 점 등 부산이 항만·물류EXPO 개최적지임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둘째, BIE의 대륙별 안배에 의한 부산EXPO 유치 기회를 배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역대EXPO 개최사례를 통해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표 3>을 통해 EXPO 개최에 대륙별, 국가별 연속개최가 문제가 되지 않으며, EXPO의 주제에 따라 해당도시와 국가의 특성이 자리매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별 연속개최로는 1935년과 1939년 벨기에의 브뤼셀과 리에주에서 종합박람회(등록)를 연이어 개최한 사례가 있으며, 1970년 일본에서도 오사카에서 종합박람회를 개최한 후 1975년에 오키나와에서 연이어 전문EXPO를 개최하였다. 미국의 경우 1962년, 1968년, 1974년, 1982년과 1984년 연이어 개최하였고, 1947년과 1951년에는 프랑스에서, 1953년, 1956년, 1961년에는 이스라엘에서, 1953년, 1954년, 1955년, 1961년에는 이탈리아에서 개최하였다. 대륙별 개최 사례로서 1990년대 이후만을 보더라도 1991년 불가리아, 1992년 스페인과 이탈리아, 1998년 포르투갈, 2000년 독일, 2004년 프랑스, 2008년 스페인 등 유럽대륙에서 집중개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시아권의 연속개최를 문제 삼는다면 차별대우에 대한 논리 개발이 충분하며, 오히려 부산은 스스로 동북아패권시대의 주체가 되는 기회를 창출, '2005일본아이치EXPO', '2010중국상해EXPO'를 이어가는 강력한 의지를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3> BIE 설립(1928년) 후 국가별 EXPO 개최 현황

연도	국 가	개 최 지	명 칭	주 제	비고
1935	벨기에	브뤼셀	브뤼셀 EXPO	민족을 통한 평화	종합
1936	스웨덴	스톡홀름	스톡홀름 EXPO	항공	전문
1938	핀란드	헬싱키	헬싱키 EXPO	항공	전문
1939	벨기에	리에주	물과 기술의 EXPO	물과 기술	종합
1939	미 국	뉴욕	뉴욕 EXPO	미래의 세계와 건설	종합
1947	프랑스	파리	도시계획,주거EXPO	도시계획과 주거	전문
1949	아이티	포트오프린스	포트오프린스 EXPO	포트프랑스 건설 50주년 기념	종합
1949	스웨덴	스톡홀름	스포츠 EXPO	스포츠	전문
1951	프랑스	니아르	섬유 EXPO	섬유	전문
1953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막정복의 EXPO	사막의 정복	전문
1953	이탈리아	로마	농업 EXPO	농업	전문
1954	이탈리아	나폴리	항해 EXPO	항해	전문
1955	이탈리아	토리노	스포츠 EXPO	스포츠	전문
1955	스웨덴	헬싱보리		예술적인 기술	전문
1956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 EXPO	굴 재배	전문
1957	서 독	베를린	건축 EXPO	건축	전문
1958	벨기에	브뤼셀	브뤼셀 EXPO	과학문명과 휴머니즘	종합
1961	이탈리아	토리노	토리노 EXPO	이탈리아 통일 100주년 기념	전문
1962	미 국	시애틀	21세기 EXPO	우주시대의 인류	종합
1965	독 일	뮌헨	뮌헨 EXPO	수송	전문
1967	캐나다	몬트리올	몬트리올 EXPO	인류와 환경	종합
1968	미 국	샌안토니오	샌안토니오 EXPO	미대륙에서의 문화교류	전문
1970	일 본	오사카	일본 EXPO	인류의 진보와 조화	종합
1971	헝가리	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 EXPO	인간과 예술의 탐구	전문
1974	미 국	스포캔	환경 EXPO	오염없는 진보	전문
1975	일 본	오키나와	오키나와 해양EXPO	우리가 알고 싶은 바다	전문
1981	불가리아	프로브디브	프로브디브 EXPO	어업	전문
1982	미 국	녹스빌	에너지 EXPO	에너지는 세계의 원동력	전문
1984	미 국	뉴올리언스	하천 EXPO	강의 세계-물은 생명의 원천	전문
1985	일 본	쓰쿠바	과학기술 EXPO	인간, 거주, 환경과 과학기술	전문
1986	캐나다	밴쿠버	교통 EXPO	움직이는 세계, 만나는 세계	전문
1988	호 주	브리즈번	레이저 EXPO	테크놀러지 시대의 레이저	전문
1991	불가리아	프로브디브	프로브디브 EXPO	가정의 과학 기술	전문
1992	스페인	세비아	세비아 EXPO	발견의 시대	종합
1992	이탈리아	제노바	선박과 바다 EXPO	컬럼버스 : 배와 바다	전문
1993	한 국	대전	대전 EXPO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	전문
1998	포르투갈	리스본	리스본 EXPO	해양 - 미래의 유산	인정
2000	독 일	하노버	하노버 EXPO	사람, 자연, 기술	등록
2004	프랑스	세느생드니		이미지	인정
2005	일 본	아이치현	아이치EXPO	새로운 지구 창조 - 자연의 예지	등록

주) BIE 공인박람회는 일반박람회 및 특별박람회로 구분되다가 종합박람회와 전문박람회로 분류됨. 그후 1988년 개정안을 통해 등록박람회와 인정박람회로 구분하고 있음.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와 문상옥, 『여수해양엑스포의 테마와 이벤트 특성에 관한 연구』, 경영학 석사논문, 호남대, 1999. 12, pp.10-11를 기초로 작성

## 2 차별화된 주제 및 이념 개발

EXPO의 주제와 기본이념은 EXPO 유치 활동시 BIE 간부 및 회원국을 상대로 유치 당위성을 홍보하는데 중요하며, BIE에서도 심사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주제 및 기본이념에 따라 시설물 건설, 회장 배치, 행사내역 등 EXPO의 모든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통상적으로 EXPO는 주최국 또는 주최도시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고자 개최하고 있다.<sup>5)</sup>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도록 주제 선정에서 역사성 등 특징이 있어야 한다. 2015년을 대비하여 21세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과거의 역사성 있는 사건과 접목하여 주제 및 기본이념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권위자를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용역을 조속히 실시하여 여기서 제시된 주제를 바탕으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산의 '물류와 Gateway'라는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주제 개발을 통해 고대 신라인의 대외교역창구, 현재 대륙관문으로서 동·서가 만나는 접점, 그리고 미래 바다와 육지, 인간과 하늘이 만나는 접점으로서 특징을 잘 표현해 내야 할 것이다.

## 3. 메가이벤트·테마파크로서 축제프로그램 개발

최근 EXPO는 거의 모든 장르의 이벤트를 집약하여 세계인을 위한 종합적인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15부산항만·물류EXPO는 성공적인 테마파크의 요건과 메가이벤트로서의 성공요인을 충족하는 축제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메가이벤트로서의 성공요소는 첫째, 독특해야 한다. 둘째, 참여자가 진실성을 느껴야 한다. 즉 관광객이 일정부분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을 때 만족감을 갖게 된다. 셋째, 주제가 있어야 한다. 특정한 주제 아래에서 축제의 분위기와 진실성, 전통 등이 융화되어 관광객이 강한 메시지를 느껴야 한다. 넷째, 상징성이 필요하다. 이벤트의 목적과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문화·경제적 목적과 연관된 상징성이 뚜렷해야 한다. 다섯째, 종합적인 역할이 강조된다. 이벤트를 통해 문화적 활동뿐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고 지역간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역할이 이벤트가 가져오는 중요한 효과이다. 여섯째, 축제분위기가 필요하다. 소속감과 참여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

5) 1989 파리 EXPO -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  
1988 브리스베인 EXPO - 유럽인 호주 정착 200주년 기념  
1992 세비야 EXPO - 콜럼버스 미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  
1998 리스본 EXPO - 바스코다가마 인도항로 발견 500주년 기념  
(국회, 『2010 해양엑스포 개최를 위한 방안』, 국정감사자료집, 1998. 11, pp.19-22)

축제분위기를 창출하는 이벤트일수록 일상의 단조로움이나 권태에서 벗어나 즐겁고 유쾌한 감동을 주게 된다. 일곱째, 이벤트에는 참여자들의 여행과 여가동기의 만족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덟째, 참여자를 최고로 배려하는 친절성이 있어야 한다. 참여자에게 고객으로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유연하고 편리하며 심리적인 교류가 증진되어야 한다.

테마파크로서의 성공요소와 특징은 첫째, 수월성으로 독특한 테마가 뛰어나야 성공할 수 있다. 세부계획을 수립할 단계에서는 반드시 주제가 부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상징성으로 정해진 테마와 상징성은 일치할수록 성공할 수 있다. 셋째, 비일상성으로 흥분과 감동을 주는 배타적인 요소이다. 넷째, 통일성으로 일종의 포용력 있는 개념이다. 개념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설치하지 않아야 하므로 개념 자체가 광의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다섯째, 일품성은 테마파크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오직 부산EXPO 단지에서만 볼 수 있는 건물과 소품들로 단지가 구성되어야 한다. 여섯째, 공간성으로 테마파크는 배후지역 인구를 기본으로 하며 관광객을 주요고객으로 삼고 있는 지역산업이다. EXPO계획단지를 테마파크로 계획하기 위해 세계적인 테마파크 노하우를 가진 업체들이 본계획에 참여하도록 하는 현실적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sup>6)</sup>

이상 테마파크의 요건과 메가이벤트의 성공요인을 고려하여 주제를 설정하고 그 주제에 따를 환경과 위락시설 및 이벤트를 설정하고 분위기를 연출하여 전체를 일관성 있게 구성, 부산에서만 가능한 국내외의 Pre-Post이벤트를 개발하여야 한다. 민속공연, 전통문화, 합창올림픽, 뮤직페스티벌, 청소년오케스트라, 세계법선대회, 전문전시회, 연극, 무용, 서커스, 음악회, 패션쇼, 영화, 멀티미디어쇼 등 수천 개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에 테마 중시와 지속성을 가진 이벤트로서의 완성을 추구해야 한다. 행사 이후에도 EXPO 전시장이 지속적으로 테마파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 관광성향에 맞는 계획을 도입하여 국제관광명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4. 단계별 항만·물류EXPO 개최

EXPO의 기본이념과 부산항만·물류EXPO의 주제를 선명하게 표현하고 테마파크 기능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분야별 검토와 전체적 통일감을 충족시킬 연구와 기획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계별 개최를 통한 Feedback 전략을 활용하여 행사내용을 보완해 나간다. 유치조직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부산EXPO 유치와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

---

6) 문상옥, 『여수해양엑스포의 테마와 이벤트 특성에 관한 연구』, 경영학 석사논문, 호남대, 1999. 12, pp. 31-42, pp. 67-71

련하면서 전방위 외교채널을 구축하여 유치활동을 강화한다.

<표 4>에서 제시한 '물류와 Gateway'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주제를 개발하고 표현함에 있어 단계적인 진행방법을 도입, Pre-EXPO 개최를 통해 2015년 EXPO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

2020년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완전준공을 기념한 Post-EXPO를 개최하여 국가 핵심적 행사로 자리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원년인 2008년 EXPO에서는 부산지역 해양·물류관련전시회를 통합하고 2008년 부산신항만 1단계 준공 홍보 등 항만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2011년에는 항만+해양, 2013년 항만+해양+육상, 2015년 항만+해양+육상+항공을 주테마로 하면서, 개최 규모(테마, 기간, 행사면적, 참가대상국, 투입예산 등)를 확대해 나간다.

<표 4> 단계별 부산항만·물류EXPO 진행계획

개최년도	추진 내용	기본 프로그램
2008년 항만중심 (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BIE등록박람회 개최를 위한 출발 EXPO</li> <li>• 부산신항만1단계 준공 홍보</li> <li>• 기존 세계 해양 항만 물류관련 기자재 및 요트·보트 등의 완성품 전문전시와 병행하여 시너지효과 창출</li> <li>• 항만산업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항만 도시 시민들과 친화적인 신항만문화 조성</li> <li>• 친환경산업으로서의 항만산업 모토 제시</li> </ul>	<p>※ 단계별 단력적 운영 및 Feedback 전략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물류와 gateway 상징하는 주제(역사성 포함) 개발</li> <li>○ 전시내용 : 상징탑, 대주제관, 소주제관, 정부관, 국제관, 지자체관, 기타부대시설 등</li> <li>○ 개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주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과 인간"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미래형 전시공간을 통하면서 다양한 해양의 모습과 의미를 표현</li> </ul> </li> <li>▷ 소주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역사관, 항만·물류관, 물류산업관, 교통관, 환경관, 기업관, 해양탐험관, 항만·물류여행관, 역사관, 미래관, TSR·TCR체험관, 미래크루즈관 등</li> </ul> </li> <li>▷ 국가관, 기업관, 정부관</li> <li>◇ 참여국가, 개최정부, 참여기업관 부스</li> </ul> </li> </ul>
2011년 항만 ⇒해양 ⇒육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부산신항 완전개장 홍보</li> <li>• 항만과 육상을 포함한 EXPO</li> <li>• 항만과 육상 물류연계산업의 부산 역할 강조</li> <li>• 항만도시의 신문화 창조성</li> <li>• 신해양 +항만+육상 문화·관광·컨벤션 콘텐츠 제공</li> </ul>	
2013년 항만 ⇒해양 ⇒육상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부산세계 EXPO의 완성단계 EXPO</li> <li>• 항만 철도 공항의 Tri-Port 시스템을 갖춘 국제물류 거점, 미래형 항만도시 구현</li> <li>• 항만을 통한 육상, 항공물류운송 연계완성행사</li> <li>• 바다+육상+항공 물류운송산업의 비즈니스 및 문화 산업 비전 제시</li> </ul>	
2015년 항만 ⇒해양 ⇒육상 ⇒항공 (우주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 BIE등록박람회 개최(국가적 행사)</li> <li>• 국가전략산업인 국내우주전략산업 현주소 조명</li> <li>• 미래물류산업 방향제시(해양⇒항만⇒육상⇒항공)</li> <li>• 항만·물류기반산업 완성단계 국제적 홍보성 행사</li> <li>• 세계 최대 해양테마파크 건설</li> <li>• 신해양문화산업 구성(크루즈+육상관광+항공여객)</li> </ul>	

## V. 결 론

선진각국들은 세계박람회를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의 기회, 국가 이미지 및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5부산항만·물류EXPO는 부산의 항만·물류라는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적 전략도시화의 기반 마련과 함께 세계 해양수도로서 부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다.

본문에서 2015부산항만·물류EXPO 유치를 위해 그 당위성과 파급효과, 그리고 유치 여건에 대해 SWOT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BIE의 실사기준과 비교하였다. 여기서 부산이 경쟁력을 확보한 우수한 여건의 도시임을 보았고, 여건개선을 위한 전략으로 차별화된 유치논리·주제·축제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단계별 Pre·Post-EXPO 개최를 제안하였다.

2012년 여수EXPO와의 연속개최에 따른 우려는 역대 EXPO 개최사례를 분석한 결과, EXPO가 일정시기동안 대륙별로 집중되고 있으며 한 국가내 여러 도시에서 연속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여수와 부산의 연속 개최를 성공시켜 동북아 패권시대 창출과 국가 브랜드 강화의 기회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015항만·물류EXPO는 대내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유치논리와 차별화된 주제 및 기본이념의 개발, 그리고 치밀한 기획으로 단계별 항만·물류EXPO를 추진하여 완벽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PO 기간과 그 전후에는 관람객들이 즐겁고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체험을 하도록 세계인의 축제의 장을 연출하여, 독특한 개성을 가진 세계 최대의 해양테마파크로서 국가 인지도의 추가상승과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 하에 부산EXPO 개최 역량을 축적하고 외교망을 확충하여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강화한다면, EXPO 유치는 현실이 될 수 있다. 21세기 부산은 EXPO를 도약대로 삼아 성장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선진부산항의 세계적인 브랜드화를 달성하고 세계 해양수도로서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국회, 「2010 해양엑스포 개최를 위한 방안」, 국정감사자료집, 1998. 11, pp. 19-22
2. 김동훈·육동일, “대전 엑스포 93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비용과 효과 분석”,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제3권, 충남대, 1992
3. 김학철, 「국제적 이벤트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강원대, 1999
4. 문상욱, 「여수해양엑스포의 테마와 이벤트 특성에 관한 연구」, 경영학 석사논문, 호남대,



1999. 12, pp. 10-11, pp. 31-42, pp. 67-71
5. 부산광역시, 『해양특별시 설치 타당성 연구』, 2004. 12, pp. 19-21
  6. 부산광역시, 『부산을 바꾸자-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사업 구상』, 2005. 6
  7. 여수시민협, 『제48회 시민토론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전망과 활동방향』, 2005. 3.25
  8. 이한송, 『지방엑스포 행사장의 실태 및 그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조경학 석사논문, 경희대, 2001. 2
  9. 조성대, 『주제공원의 축제브랜드 개성과 유인력에 대한 연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을 중심으로』, 석사논문, 배재대, 2003. 12
  10. 주수현, 『메가이벤트의 지역경제효과분석 모델 구축』, 부산발전연구원, 2003. 11, p. 6
  11. 해양수산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2005. 3
  12. 해양수산부, 『세계박람회 Q&I 자료집』, 2002. 3, p. 8
  13. Bill, Bramwell, Strategic Planning Before and After a Megaevent, *Tourism Management*, 18, 1997
  14. Gets, D., *Festivals, Special Event and Tourism*,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91
  15. Gets, D., The Festivals and Event in Promoting Tourism, *Asia Pacific Tourism Association 4th Conference Proceeding*, 1998
  16. Mohr, K., K. Backman, L. Gahn and S., Backman, An Investigation of Festival Motivations and Event Satisfaction by Visitor Type, *Festival Management and Event Tourism*, 1(3), 1993
  17. Uysal, M., L. Gahan and B. Martin, An Examination of Event Motivation : A Case Study, *Festival Management and Event Tourism*, 1(1), 1993
  18. Wall, G. and C. Mitchell, *Cultural Festivals as Economic Stimuli and Catalysts of Functional Change*, G. J. Syme, B. J., 1989
  19. Wylson, Anthony, *Design for Leisure Entertainment*, Newnes-Butteworths, 1980

